
2026년 제43회 관세사 1차 시험 총평

관세법개론

구민회 관세사

이번 2026년 관세사 관세법은 작년에 비해서는 쉽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전 시험보다는 난이도가 있어 이제 전반적으로 난이도 상향이 된 듯합니다.

최상위급의 문제 수도 지난해보다 줄었고, 중상위급 문제도 나올 만한 주요 부분에서 출제되어 전반적으로 작년에 비해서는 점수가 상향될 거 같습니다.
다만, 예전에는 중위급 문제는 정답이 쉽게 눈에 띄게 출제가 되었는데, 이번에는 쉽게 정답이 보이는 문제는 출제가 안되었습니다. 즉 하위급 문제가 거의 없어졌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1) 관세법 - 과세편(19문제)

총칙2, 과세요건2, 과세표준(관세평가,가격신고)2, 세율4, 부과징수2, 담보1, 납세의무소멸1, 감면분납2, 납세자권리3

(2) 관세법 - 통관편(조사벌칙보칙포함- 15문제)

운송수단1, 보세구역3, 운송1 통관5, 벌칙조사3, 보칙2

(3) FTA특례법(6문제)

총칙1, 원산지조사1, 무역피해구제를 위한 관세조치3, 통관특례 및 관세상호협력1

관세법은 늘 그러듯이 전 분야에서 골고루 출제되었습니다.
FTA특례법의 경우는 무역피해 구제조치 파트가 조금 집중된 거 말고는 평이한 수준이었습니다.

킬러문제는 작년에 6문제 정도 출제되었던 것에 비해 3~4문제 정도 출제되었습니다.
올해도 신청서 기재사항 문제가 주종을 이루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관세법은 관세사업무의 핵심이며, 시험적으로 1차와 2차에 전부 있는 핵심 과목입니다. 더욱이 1차 관세법의 난이도가 예전에 비해 전반적으로 상향된 이상, 시험 직전에 문제집만 보거나 이해 없는 암기로는 좋은 점수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관세법 공부 방향은 1차 시험 합격이라는 근시안적인 생각을 버리고 특정 분야에 치중 없이 전 파트를 완벽히 이해하고 체계를 잡고 2차로 가야겠다는 맘으로 접근하시길 바랍니다.

2026년 제43회 관세사 1차 시험 총평

관세법개론

윤준필 관세사 (1)

0. 전년 대비 출제 현황

※A형 기준 / 문항 수

구분		제43회 (2026년)	제42회 (2025년)
범위	제1장 총칙	2	2
	제2장 부과·징수	8(▲2)	6
	제3장 세율·품목분류	4	4
	제4장 감면·환급·분납	2(▼3)	5
	제5장 납세자권리	3(▲1)	2
	제6장 운송수단	1(▼1)	2
	제7장 보세구역	3	3
	제8장 운송	1(▲1)	0
	제9장 통관	5	5
	제10장 세관공무원 자료제출	0(▼1)	1
	제11장 벌칙	2	2
	제12장 조사·처분	1	1
	제13장 보칙	2(▲1)	1
	FTA특례법	6	6
유형 (중복 가능)	옳은 것 고르기	12(▲5)	7
	서류 기재사항	3(▼1)	4
	위원회	0(▼2)	2
	복합형(둘 이상 개념 한번에)	2(▲2)	0
	전 범위 묻기(법 또는 챗터)	2(▲2)	0
	빈칸 풀기 / 모두(ㄱ,ㄴ) 고르기	12(▲1)	11
	최근 개정(3년 이내)	3(▼4)	7

1. 난이도 평가

“ 전년 대비 문제유형 구성과 최신 경향을 벗어난 방향성 때문에 살짝 어렵다고 느껴진 시험 ”

- 범위에서는 10장을 제외하곤 모든 챗터에서 골고루 출제
(다만, 최근 비중이 늘고 있는 4장이 대폭 줄고, 과거 10년 전 빈출 챗터인 2장이 다시 강제)
- 유형에서는 선지를 다 확인해야 하는 “옳은 것 고르기”가 대폭 증가하였고,
- 시험 직전(2월 27일 시행)까지 많은 법령 개정이 있었음에도 최근 개정부문 출제 문항 수는 급감하였음
- FTA특례법의 경우 공부 범위 대비 점수 획득이 쉬운 서브과목이었지만 지엽적인 부분에서 출제되거나 평소 FTA특례법 부문에서는 잘 출제되지 않던 유형으로 출제되어 난이도 상승

관세법개론

윤준필 관세사 (2)

2. 고난이도 문항(킬러문항) - A형 기준

• 관세법

- 20번(항외하역), 25번(지식재산권) 등 기재사항 유형은 암기 안 하면 유추로 풀기 어렵고,
- 23번(종합보세구역 전 범위)은 주체(대통령령, 재정경제부령, 관세청장, 세관장) 구분 때문에 의외로 시험 현장에서 어렵게 느낄만한 문제임
- 32번(채납자 사업 인허가 제한), 34번(청문실시대상)은 제13장 보칙에서 지엽적이고 생소한 문제로 틀리라고 낸 문제지만, 각각 모의고사식 문제풀이 8회차 34번과 전국 모의고사 4회차 34번과 유사하여 미리 연습한 수험생에게는 익숙한 문제라고 판단됨.

• FTA특례법

35번(전 범위/ 법 전체를 물어보는 유형), 37번(긴급관세 부과건의 기재사항/ 기재사항 유형), 38번(덤핑방지 관세 조사 통지기한/ 지엽적이고 생소한 개념), 40번(통관특례+협정관세 적용 제한/ 둘 이상의 개념을 한번에 묻는 복합형 유형) 등 4문제나 출제되어 기존의 평이한 난이도라고 보기 어려움. 시험 현장에서 매우 당황했을 가능성이 높음.

3. 맺음말

- 전반적으로 최신 경향과 다른 방향과 모습을 보이며 유형 구성에서 난이도가 높아져 전체 수험생 대상으로는 전년 대비 조금 어려웠다고 판단된 시험이었지만,
- 출제 범위가 대체로 예상을 빗나가지 않고 평소 수업 때 강조했던 핵심 개념 위주로 출제되어 지엽적인 부분에서 출제된 문제들도 심화 과정이나 모의고사를 통해 여러 차례 연습한 개념이라 합격생 대상으로는 의외로 고득점이 많을 것으로 예상됨.

무역영어

김용원 관세사

1. 1차 시험 전반적인 난이도 및 경향

2026년 관세사 1차 무역영어 시험에서는 주요 3대 협약에서 18문제, 기타 협약에서 18문제 및 무역실무 분야에서 4문제가 출제됨.

2. 작년시험 대비 난이도

2025년도 무역영어 과목에서는 실무 분야 문제가 전혀 출제되지 않았고 3대 협약에서 21문제, 기타 협약에서 19문제가 출제되었는데, 올해 문제 분포를 보면 수험생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3대 협약 문항 수가 작년에 비해 감소했지만, 수험생이 약세를 보이는 기타 협약 문항 수 역시 감소하였고, 또한 실무 분야 문제가 4문제가 포함되어 있어 작년에 비해 점수 분포는 크게 변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3. 킬러문항 관련 사항 언급

3대 협약 문제들은 평이한 문제들이 대부분이었으나 기타 협약 분야는 기출에서 다뤄지지 않은 문제들이 다수를 차지하여 수험생들이 특히 어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예상.

4. 전반적인 총평으로 마무리

무역영어 과목은 체감 난이도에 비해 점수 편차가 의외로 크지 않은 과목임. 올해 시험에서도 3대 협약 비중이 여전히 높고 비교적 평이한 실무 문제의 비중이 증가했으므로 꾸준하게 공부를 해온 수험생이라면 안정적인 점수를 취득했을 것으로 판단됨.

무역영어

유샘나 관세사

2026년 관세사 1차 무역영어의 경우 난이도가 평이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협약 18문제, 기타 협약 및 용어 문제 22문제로 주요 협약/기타 협약 출제 비중이 예년과 비슷하며, 난이도 또한 작년 기출문제의 수준과 유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협약은 예상된 조항에서 평이하게 출제되었으며, 기타 협약의 경우 그동안 상대적으로 출제 빈도가 낮았던 협약이나 기타 협약 중에서도 비교적 주목되지 않았던 조항에서 문제가 출제되어 무역영어 고득점 여부는 기타 협약 영역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과락 및 점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킬러 문항으로는 58번 URC 17조 관련 문제, 60번 SGA 문제, 61번 Hague-Visby 문제, 68번 몬트리올 문제, 74번 뉴욕협약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올해 기출에서는 무역 용어 및 조항의 종류를 물어보는 일반적인 유형의 문제가 평년보다 다소 많이 출제되었으나, 문제의 난이도 자체는 높지 않은 수준이어서 합격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1차 무역영어 기출은 기본적인 개념과 조항의 내용을 확인하는 문제가 중심을 이루었고, 문제의 유형도 평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 전반적인 문제 접근 자체는 크게 어렵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타 협약의 경우 자주 언급되지 않은 부분에서 출제된 경향이 있어 해당 부분에서 수험생들이 어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반적으로는 기본적인 학습이 충실히 이루어진 수험생이라면 무난하게 대응할 수 있었던 시험으로 보입니다.

내국소비세법

이경신 세무사

1. 1차 시험 전반적인 난이도 및 경향

43회 내국소비세법은 몇몇 문제를 제외하고는 평이하게 출제되었습니다. 기본서로 꼼꼼히 학습하신 수험생 분들이라면 어렵지 않게 풀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가가치세법은 평이했으나 개별소비세법, 주세법은 기존의 문제들에 비해서 어렵게 출제되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의 계산문제의 경우 특히 쉽게 출제되어 기본만 있어도 맞출 수 있는 문제였고, 서술형문제는 평이하게 출제되었으나 정확하고 디테일하게 공부하지 않은 수험생들에게는 어려웠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작년시험 대비 난이도/ 킬러문항 관련 사항 언급

43회 내국소비세법은 42회에 비해서 어렵게 출제되었습니다. 특히 개별소비세법과 주세법이 기존에 출제되지 않은 부분도 출제되어 수험생 분들이 당황하셨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별소비세법의 31번 문제 중 예시부분은 이번 시험에 처음으로 출제된 부분이고, 35번,36번 문제는 디테일하게 기본서로 학습하신 분들이라면 쉬웠겠지만 그 외의 수험생들에게는 어려운 문제였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외에서 전반적으로 부가가치세, 주세법의 경우 꼼꼼히 학습한 수험생들은 고득점이 가능한 문제이지만 그렇지 못한 수험생에게는 어려운 문제였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전반적인 총평으로 마무리

43회 내국소비세법은 기존의 기출문제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어렵게 출제되었습니다. 내국소비세법이 해를 거듭할수록 난이도가 상승되고 있습니다. 이 전의 선배들의 학습방식으로 공부해서는 고득점하기가 힘든 과목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개념 정도만 있어도 고득점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해를 거듭할수록 디테일한 부분까지 완벽하게 학습해야 고득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모든 수험생분들 점수와 상관없이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능하고 멋진 관세사님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2026년 제43회 관세사 1차 시험 총평

회계학

유지원 회계사

2026년 관세사 1차 회계학은 전년 대비 다소 쉽게 출제된 것으로 보입니다.

재무회계의 경우 계산문제 20문항 중 확정급여부채, 하자보증관련 수익인식, 외환평가에서 출제된 3문제 및 이론형 문제 10문항 중 주식기준보상, 인식과 측정에서 출제된 2문제가 까다롭게 출제되었고, 이를 제외하고는 전년 보다 쉽게 출제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원가회계의 경우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계산문제들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원가회계부터 풀이를 시작한 수험생들은 전체 시간 조절에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라 생각되는군요. 출제 난이도는 전년 보다 어려워 보입니다.

2026년 관세사 1차 시험이 종료되었습니다. 이제 당락이 결정되었고 수험생들은 “이제 무엇을 해야하는가?” 의 의사결정을 해야 합니다. 명심할 것은 어제까지 살아온 삶은 매물원가라는 것입니다. 건승하시길!

회계학

김성수 세무사 (1)

1. 문제 구성

이번 제43회 관세사 1차 시험 회계학 과목의 문제 구성 및 문제 유형별 구성은 다음과 같다.

[문제구성]

구분	문항수
재무회계	30문제
원가관리회계	10문제
총 문항수	40문제

[문제 유형별구성]

유형	문항수
이론·개념 문제	12문제
계산형 문제	28문제

2. 고난이도 문제

이번 시험에서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높았던 문제는 다음과 같다.

- 62번 : 현금흐름표 - 영업활동으로부터 창출된 현금
- 64번 : 법인세 회계
- 78번 : CVP 분석 문제
- 80번 : 대체가격

특히 62번과 64번은 계산 과정에서 세부적인 조정 항목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로 평가됨

3. 재무회계 총평

재무회계는 전체적으로 기본 개념과 계산 능력을 균형 있게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다.

재고자산, 금융상품, 사채, 자본, 현금흐름표 등 주요 주제에서 골고루 문제가 출제되었으며 대부분의 문제는 기본적인 학습이 되어 있다면 충분히 해결 가능한 수준이었다.

일부 문제에서는 계산 과정에서의 주의사항이나 세부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형태가 나타났으나 전반적으로 난이도는 평이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기본적인 준비가 된 수험생이라면 60점 이상 득점하는 데에는 큰 어려움이 없는 시험이었다고 볼 수 있다.

회계학

김성수 세무사 (2)

4. 원가관리회계 총평

원가관리회계는 공정원가, 표준원가, 서비스부문 배부 등 전통적인 주제에서 출제되었다.

다만 다음 두 문제는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높았다.

- CVP 분석 문제
- 대체가격 문제

특히 대체가격 문제는 계산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풀이가 어려운 문제로 평가된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기본적인 원가관리회계 학습이 되어 있다면 50% 이상 득점하는 데에는 무리가 없는 수준이었다.

5. 전체 난이도 평가

종합적으로 보면 이번 제43회 관세사 회계학 시험은

“평이한 수준이지만 일부 중상 난이도의 문제가 포함된 시험”으로 평가할 수 있다.

기본적인 개념 정리와 계산 연습이 충분한 수험생이라면 안정적인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출제된 시험이었다.

6. 마무리

시험을 치르신 모든 수험생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결과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